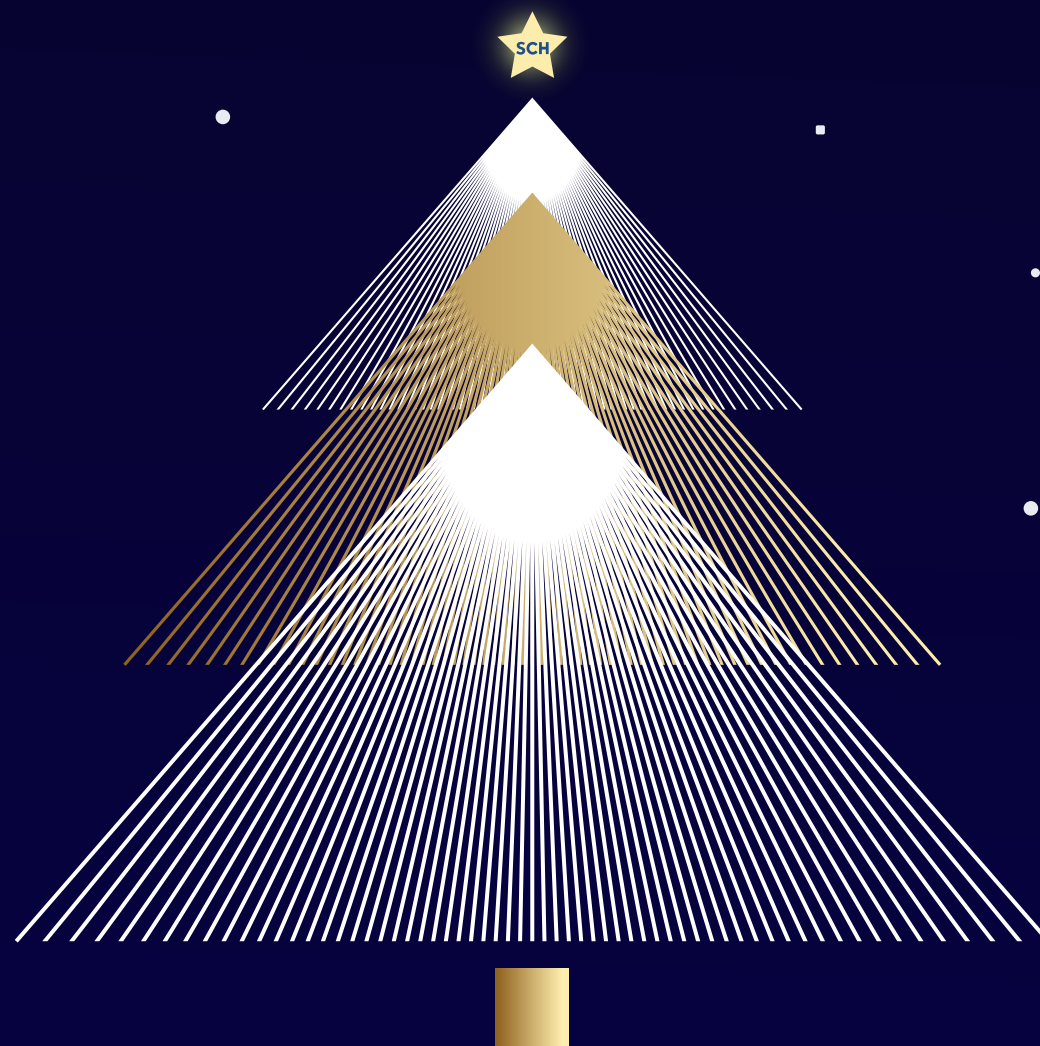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통합의료원보 VOL. 92

2025
11
12



순천향의 마음,
세상을 향한 따뜻한 약속

“

사람을 사랑으로 진료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치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천향의 길입니다!

”



‘인간사랑’ 정신으로 완성한 2025, ‘앙트레프레너십’으로 거듭나는 새해

Editor_백승주

2025년, 순천향대병원은 다시 한번 ‘인간사랑’의 가치를 증명한 한 해를 보냈다. 천안 새병원 건립이라는 역사적인 성과와 함께 의료계의 격변 속에서도 순천향인은 흔들림 없이 환자 곁을 지켰다. 의료 대란의 위기 속에서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 것은 순천향의 저력과 공동체 정신이 빛난 대표적 장면이었다.

새병원의 탄생은 단순한 공간의 확장이 아닌, 의료의 본질을 향한 깊은 성찰의 결과다. 최신 의료 인프라와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 연구와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병원의 면모를 갖춘 천안 새병원은 ‘인간사랑’이라는 설립 이념을 현실 속에서 구현한 결정체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설립자 서석조 박사의 ‘인간사랑 정신’이 있었고, 서교일 이사장의 앙트레프레너십을 발휘한 혁신의 리더십이 있었다.

순천향은 그 철학을 바탕으로, 환자를 향한 헌신과 구성원 간의 연대를 통해 한 해 동안 수많은 도전을 이겨냈다.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헌신한 의료진, 묵묵히 병원의 발전을 이끈 모든 순천향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2025년은 순천향인 모두에게 자부심의 해였다. 각자의 자리에서 인간사랑을 실천하며, 새로운 순천향의 역사를 써 내려간 모든 이들이 바로 순천향의 얼굴이었다. 이제 순천향은 또 다른 도약의 문턱에 서 있다. 다가오는 2026년, 순천향은 더 혁신적이고, 더 따뜻한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의지로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다.

2026년 새해에도 ‘인간사랑’의 정신으로, ‘앙트레프레너십’ 정신으로 순천향의 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2025. 11+12 VOL. 92

발행일 2025년 11월 16일

통권 92호

발행인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중, 한세형, 이상원, 안지영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31길 31

연락처 02-710-3166 www.schmc.ac.kr

편집디자인 피앤플러스 02-2269-5689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표지설명
한 해 동안 함께해주신 환우와 가족, 그리고 순천향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돌보며 보낸 시간들이 우리 모두의 빛이 되었습니다. 순천향의 따뜻한 마음이 새해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크리스마스트리에 담았습니다.

06

LOVE

온갖 아픔 딛고 18년 만에 건강한 아이 출산



08

FOCUS 1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제1회 '향설의학상' 시상

10

FOCUS 2

순천향의대 총동창회, 모교 신·증축에 3억 기부
2회 졸업 동문회, 40주년 장학금 1억,
신·증축 기금 1500만 기부



12

FOCUS 3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대학 본지정' 최종 확정



14

WITH

'보훈의 가치'와 '인간사랑 철학'이 만나다



16

HISTORY

한국 현대의학의 성장에 바친

서석조 박사의 삶 『서석조 평전』 연재 ①

- 서석조, 마침내 미국으로 유학 떠나다
해방 후 사비 유학의 선두 주자

18

DOCTOR

시간과 생명을 지키는 신경외과 수술 마스터
- 여동규 순천향대 구미병원 신경외과 교수



22

VISIT

글로벌 순천향,
그 중심에 '국제의료협력팀' 있어
- 순천향대 서울병원 국제의료협력팀



26

ISSUE

헬리코박터 치료, 2제 요법으로도 치료 가능

28

ISSUE

-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 AI 기술로 생명 지킨다
- 순천향대 부천병원, 로봇수술 4,000례 돌파



30

ISSUE

천안병원, 새병원 개원 후 첫 생체 간이식 시행

32

ISSUE

순천향대 구미병원,
지역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봉사 펼쳐

34

KNOWLEDGE

남성 동성애자 대상 PrEP의 효과와
안전성 입증

36

KNOWLEDGE

오후만 되면 눈이 감기고 힘 빠진다면...
혹시 '중증근무력증'?

38

KNOWLEDGE

뇌혈관 질환, 시술·수술 가능한
하이브리드 수술실 치료효과 크게 높인다

40

KNOWLEDGE

고관절 주위 골절의 진단과 치료

42

EQUIPMENT

차세대 디지털 병리 시스템
DIGITAL PATHOLOGY SOLUTIONS

44

NEWS



온갖 아픔 딛고 18년 만에 건강한 아이 출산

50여 회 시험관 시술과 4번의 유산 이겨낸 감동스토리

부부의 가장 큰 소망은 건강하고 예쁜 2세를 갖는 것이다. 부부 사랑의 결실이자, 부부 생활의 또 다른 행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시험관 시술 등으로 이를 극복하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다.

글_전진용 사진_이병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산부인과를 찾은 한 부부의 사연은 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다. 그 주인공은 유경희(42, 여), 신동석(52, 남) 부부의 사연이다. 이 부부는 결혼 후 18년 만인 올해 사랑의 결실인 건강한 딸을 출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과정은 매우 험하고 힘든 여정이었다. 지난 2007년에 결혼한 이 부부는 결혼 후부터 줄곧 아름다운 아이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 두 부부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쉽게 생기지 않았다. “우리 부부 모두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아기가 생기지 않아 상심이 컸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견딜 수 있었던 것 같

습니다. 하지만 불임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처와 고통은 커졌습니다.”

50여회 시험관 시술, 그리고 4번의 유산

결혼 7년만에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바로 임신 사실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3개월 만에 유산으로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슬픔은 시작에 불과했다.“아이를 가슴에 품고 싶다는 우리의 소망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할 수록 마음의 상심과 고통은 더 컸지만 한 번 더 포기한 적은 없었어요.”

부부의 간절한 소망은 50여 회의 시험관 시술과 4번의 유산이라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 18년 만인 올해 초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왔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부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산부인과를 찾았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좋지는 못했다.

산모의 필사적 노력과 의료진 헌신으로 극복

천안병원 산부인과 김윤숙 교수는 다음과 같이 그때를 회상했다.“임산부로서의 적지 않은 나이, 자궁근종, S단백질 결핍, 거기에 더해 태아에게 혈류, 영양소 등의 공급이 안 되는 항인지질항체증후군 등을 앓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아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유명하다는 수많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다녔지만, 임신이 힘들었던 정확한 원인을 제대로 알려준 곳은 천안병원 산부인과가 처음이었다.“김윤숙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과 막연한 희망 섞인 말이 아닌 정확한 진단을 들으며 오히려 마음이 안심되고

보다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의료진도 너무도 편안하게 저희를 돌봐 주었습니다. 산모와 모든 가족의 필사적 노력과 간절함 그리고 산부인과 의료진의 헌신은 결국 그토록 바라던 결실을 맺게 해주었다.

너무도 예쁜 ‘찰떡순(태명)’의 탄생

올해 9월 25일 오전 8시 5분 순천향대 천안병원 산부인과에는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2.2kg의 예쁜 아이가 태어났다. 이미 지어진 태명은‘찰떡순’이다. 엄마의 태몽에 나온 ‘찰떡’과 여자아이를 뜻하는‘순’을 합친 이름이다.

엄마 유경희 씨는“이처럼 예쁜 아기를 낳도록 도와준 김윤숙 교수를 비롯한 모든 산부인과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이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건강하고 예쁜 아이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또 아빠 신동석 씨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냥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윤숙 교수는 “아이의 탄생에 동행할 수 있어 기뻐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힘을 보텐 거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아이들을 키우는 같은 엄마로서 인생에 있어서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너무도 잘 알기에 더욱 기쁘다”고 화답했다.

한편, 천안병원은 산모 가족이 퇴원하는 날에 맞춰 조출한 축하 이벤트도 준비했다. 산모 가족과 이문수 병원장, 김윤숙 교수(산부인과), 송준환 교수(소아청소년과), 분만실,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병동 간호사들이 함께해 축하해 주었다. ■SCF





향설의학연구학술대회 2025 *Pioneering the Future of Medicin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2025년 11월 9일(일) |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현곡홀



향설 의학상 첫 수상자 김상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교수

순천향대 중양의료원, 제1회 '향설의학상' 시상

故 서석조 박사 인술·철학 기려 신설된 상... 김상정 서울대 교수 첫 수상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은 11월 9일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개최하는 '향설의학연구학술대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향설의학상'을 시상하고 향설 학술연구비도 함께 시상한다. 향설 의학상은 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가 순천향 설립자인 고(故) 향설 서석조 박사의 인술과 교육 철학을 기리며, 의학 연구 분야의 뛰어난 연구자를 발굴하여 수상하기 위해 마련했다.

향설 의학상의 첫 수상자는 김상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교수로 선정되었으며, 향설 학술연구비는 광동원 건국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와 공성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가 선정됐고, 향설 '젊은연구자상'은 장혜민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로 정해졌다. 향설 의학상 수상자인 김상정 교수에게는 1억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향설 학술연구비 수혜자인 광동원 교수와 공성혜 교수에게는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하며, '향설젊은연구자상' 수상자 장혜민 교수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한다.

김상정 교수, 소뇌 신경-교세포 회로 통해 통증 처리하는 새로운 기전 규명

김상정 교수는 소뇌 기억과 만성 통증을 아우른 독보적 연구 경험을 통해 두 주제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지난 1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게재했다. 이 연구를 통해 운동기능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뇌가 통증 경험을 조절할 수 있으며, 새로운 소뇌 별세포 분자 기전을 통해 병적인 만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하며 학습과 기억 연구를 이끌고 있다. 또한 서울대 신경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국내 신경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은 "순천향대 중양의료원은 올해부터 '순천향의학연구학술대회'에서 '향설의학연구학술대회'로 명칭을 변경해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했다"며 "향설 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가 기획한 '향설의학상'은 국내 의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탁월한 연구자를 격려하는 의미 있는 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향의대 총동창회, 모교 신·증축에 3억 기부

전 동문 참여 '10억 원 모금 캠페인' 전개

순천향대학교(총장 송병국) 의과대학 동창회(회장 김대익)가 모교 발전을 위한 '의과대학 증축 건축기금 모금운동'의 일환으로 1차 모금액 3억 원을 모교에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순천향의대 동문들의 자발적 참여와 모교 사랑이 결집된 결과로, 교육·연구 환경 개선과 미래 의료인 양성을 위한 신·증축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순천향의대 2회 졸업 동문회는 졸업 4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1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졸업 40주년 기념식 및 사은회'를 열어, 졸업생들이 은사와 함께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모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글_이미종(순천향대 서울병원 홍보팀장) 사진_홍보팀 제공

이번 모금 운동은 지난 6월 10일 백무준 순천향대 의과대학장이 김대익 동창회장 및 주요 임원진을 초청해 의대 신·증축 사업의 비전과 필요성을 설명한 데서 출발했다. 당시 백 학장은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과 첨단 연구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동창회는 내년까지 총 10억 원을 조성



한다는 목표 아래, 전 졸업생이 1인당 100만 원씩 기부하는 '범 동문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김대익 회장 1억 원 선기부, “후배들을 위한 든든한 토대 되길”

모금 운동의 첫 출발점은 김대익 회장의 1억 원 선 기부였다. 김 회장은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의 더 나은 배움의 터전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흔쾌히 기부 의사를 밝혔다. 김 회장의 뜻에 공감한 각 기수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면서 현재까지 3억 원이 모였다.



기금 전달식은 순천향대학교 본관에서 열렸으며, 서교일 동은학원 이사장, 서유성 의무부총장, 백무준 의과대학장, 이정재·이문수·민경대 부속병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동문들의 따뜻한 나눔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백무준 의과대학장은 “이 기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순천향의대 동문들이 모교를 향해 보내는 사랑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의대 신·증축 사업은 더 큰 순천향의 미래를 열고, 우리 의대가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익 동창회장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50년간 수많은 훌륭한 의료인과 연구자를 배출하며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다가올 50년, 100년을 향해 순천향의 의학 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동문이 마음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학금·가운 지원으로 후배 사랑 실천하는 든든한 의대 동문회

한편,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는 이번 모금 운동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모교와 후배들을 지원하고 있다. 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은 매년 2·4·6학년 재학생 240명 전원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험·실습에 필요한 가운을 지원하는 등 후배 학생들의 학업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창회는 정기적인 학술 세미나 및 선후배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순천향의대만의 끈끈한 공동체 문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문 간의 유대감 강화와 의료 전문성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순천향대 의과대학은 이번 기금 전달을 계기로 교육·연구 공간 확충, 첨단 의학 실습실 조성, 연구 인프라 고도화 등 구체적인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학 측은 “동문들의 참여와 후원이야말로 순천향의 100년 미래를 여는 가장 든든한 원동력”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순천향의대 2회, 졸업 40주년 기념식 사은회 개최 장학금 1억원·의대 신증축 기금 1500만원 기부

순천향의대 2회 졸업 동문회는 졸업 40주년을 맞아 1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졸업 40주년 기념식 및 사은회'를 열어, 졸업생들이 은사와 함께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모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순천향의대 2회 동문회는 의과대학 장학기금 1억원과 의과대학 신증축 기금 1500만원을 모교에 기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순천향의료원 산하 병원장, 김성열·권영주·문철 교수 등 원로 은사들과 2회 졸업생 등 총 89명이 참석했다. 또한 3회 동기대표 이영홍, 의대 총동창회 김대익 회장(8회), 안현철 사무총장(8회), 이호수 홍보부회장(8회), 강기훈 장학재단 이사장(12회), 본과 4학년 대표 이민용, 본과 3학년 대표 오준철 등 후배들도 함께해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순천향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김범태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신경외과)는 “이번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는 순천향의대 2회 동문들이 모교와 은사님들께 드리는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이 뜻깊은 만남이 후배들에게도 좋은 전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대학 본지정' 최종 확정

AI 의료융합 혁신 허브 도약... 5년간 1000억 원 투입



순천향대학교(총장 송병국)가 교육부 '2025 글로벌대학 본지정 대학'으로 최종 선정되며,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서의 도약을 본격화했다. 향후 5년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순천향대는 "지역과 함께 세계로! AI 의료융합 분야 아시아 1위(Top 1)"를 비전으로 내걸고, 인공지능(AI)과 의료를 결합한 혁신 사업을 전면 추진한다. 이번 선정을 통해 순천향대는 충남 지역을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이끌 핵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AI 의료융합 선도대학으로의 도약

순천향대학교는 'AI 의료융합 글로벌 수도 구현 선도대학'을 목표로 8대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그중 핵심은 ▲AI 의료융합혁신교육원 설립 ▲교양-전공-현장을 잇는 3단계 (3-Layer) 교육시스템 ▲AI 의료 융합 인재 파이프라인(Pipeline) 구축과 학사·인사제도

혁신 ▲전문대학원 및 혁신기술원 신설 ▲아산-천안-내포를 잇는 트라이앵글(Triangle) 캠퍼스 조성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R&D 및 기업 지원 ▲외국인 유학생·글로벌(Global & Local) 인재 양성 ▲AI 의료융합 모델의 해외 수출 및 기술 이전 등이다.

이 가운데 'AI 의료융합 트라이앵글 캠퍼스'는 순천향대 혁신 전략의 핵심 플랫폼이다. 아산(교육·연구), 천안(실습·실증), 내포(상용화 협력)을 잇는 3개 거점을 중심으로 대학, 병원, 산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AI 의료기기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의료데이터 기반 연구 ▲산학 공동창업 등 대학 중심의 융복합 생태계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순천향대는 또한 교양과 전공, 현장을 연결하는 3-Layer 교육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AI와 의료 분야에서 실질적 경쟁력을 갖춘 실무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교육 혁신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향한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혁신 허브'

순천향대의 혁신 전략은 단순히 지역 대학의 발전을 넘어, '글로벌(Glocal)'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지역과 글로벌을 동시에 아우르는 개방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공동연구, 인재교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과 글로벌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한 AI 의료융합 특화 교육과정이 신설돼, 순천향대는 '세계 속의 충남', '아시아의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대학은 또한 지역 기업과의 상생을 중요한 축으로 삼았다. 충남 아산·천안 지역 산업체와 협력해 '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 연구개발(R&D)에서 사업화, 기술 이전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AI 의료 융합 기술을 활용해 성장하고, 지역 경제 전반에 혁신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충남과 대한민국 대표 혁신 거점으로

이번 글로벌대학 본지정은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을 넘어, 순천향대가 그동안 쌓아온 '산학협력 DNA'와 '의료·바이오 융합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순천향대는 1978년 개교 이래 의료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순천향대 부속병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교육·연구·산업 협력을 이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AI, 바이오, 헬스케어, 로봇 등 미래 신산업 분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해 왔으며, 이번 글로벌대학 본지정을 계기로 그 성과를 한층 가속화할 예정이다.

송병국 총장은 "이번 본지정을 통해 순천향대학교는 AI 의료융합을 기반으로 충남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대학, 지역, 그리고 글로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순천향대가 구축할 AI 의료융합 플랫폼은 미래 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지역과 세계를 잇는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순천향 발전위원회’에 총 50억 원 기부 약속

이현옥 명예위원장, 순천향 발전위원 초청해 역사관 개관 축하



순천향 중앙의료원 발전위원회가 지난 10월 15일, 이현옥 순천향 중앙의료원 발전위원회 명예 위원장의 초청으로 여의도에 있는 (주)상훈유통 본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상훈유통이 창립 31주년을 맞아 새롭게 조성한 역사관 ‘기리고, 그리다’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순천향 발전위원회 위원 8명과 중앙의료원 관계자 5명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기업 탐방을 넘어, 순천향의 ‘인간사랑’ 정신과 상훈유통의 ‘사업보국’ 철학을 통해 순천향 발전위원회의 교류와 연대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글·사진 중앙의료원 기획조정팀



상훈유통, 31년 역사와 ‘사업보국’의 철학을 담다

(주)상훈유통은 정관장 홍삼 등 국내 대표 상품을 주한미군 부대에 공급하며 국내 수출 확대에 기여해온 31년 차 중소기업이다.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정신 아래 설립된 상훈유통은 “함께 성장하며 사회에 보답한다”는 기업 철학을 중심으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창립 31주년을 기념해 개관한 역사관 ‘기리고, 그리다’는 회사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그려보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순천향 발전위원회 8명과 중앙의료원 관계자 5명은 역사관 입구의 아트월에서부터 기업 이념, 설립 배경, 사회공헌 활동, 각종 수상 내역, 기업문화 전시까지 세밀하게 관람했다. ‘기리고, 그리다’라는 이름에는 상훈유통이 걸어온 길을 기리고, 앞으로의 꿈과 책임을 함께 그린다는 철학이 녹아 있다.

보훈 정신으로 이어온 사회공헌, 총기부액 160억 원

이현옥 회장은 베트남전 참전과 보훈 공직 경력을 통해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업경영에 접목해왔다. 상훈유통은 보훈의 가치를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하며, 교육·문화·복지·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을 실천해 왔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은 160억 원에 달하며, 이러한 공로로 2013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순천향 발전위원회 관계자들은 상훈유통이 보여준 ‘보훈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기업의 본질적 사명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순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선한 영향력’이 기업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역사기념관

의료 도네이션 50억 원, 순천향과 함께하는 인간사랑의 여정

이현옥 순천향 발전위원회 명예 위원장이 순천향과 인연을 맺은 것은 환자로서의 진료 경험에서 비롯됐다. 그는 순천향의 ‘인간사랑’과 ‘환자 중심’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의료 분야의 나눔을 결심했다. “의료는 인간 삶의 근간을 지탱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라는 믿음 아래, 지금까지 총 25억 원의 의료 도네이션을 실천했으며, 최근에는 순천향 발전위원회에 25억 원을 추가 약정해 총 50억 원의 기부를 결정했다.

그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세계적 리더들이 의료 분야에 대한 공헌을 인류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나눔으로 삼는 이유는, 의료가 곧 생명과 직결된 가치이기 때문”이라며 “순천향의 ‘사람을 향한 사랑’의 정신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상훈유통 본사 방문은 단순한 초청행사가 아니라, ‘보훈의 가치’와 ‘인간사랑의 철학’이 만나는 상징적인 자리였다. 이현옥 명예 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순천향 발전위원회의 방문은, 나눔과 헌신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우며 순천향의 발전과 비전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순천향 발전위원회는 앞으로도 이현옥 명예 위원장과 같은 선한 영향력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의료계, 그리고 세상 모든 이에게 더 큰 행복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scv



한국 현대의학의 성장에 바친 서석조 박사의 삶을 연재합니다.

순천향대학교 학교법인 동은학원은 2021년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향설서석조탄생100주년기념사업회'를 발족하여 '서석조 평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서석조 박사의 활동이 지닌 의미를 역사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교일 이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진이 참여하여 국내외의 수집된 실증적 자료 검토와 인터뷰를 통한 자료를 정리 저술했다. 본지는 한국 현대 의학의 성장에 일생을 오롯이 바친 서석조 박사 삶의 완결편인 '서석조 평전'을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SCH 플랫폼'의 재발견 일환으로 연재한다.

서석조, 마침내 미국으로 유학 떠나다 해방 후 사비 유학의 선두 주자

1949년 서석조는 미국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다. 7월부터 뉴저지(New Jersey)주에 있는 세인트 바나바스 병원(Saint Banabas Hospital)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기 위해서였다. 5년 반에 걸친 미국 생활의 시작이었다.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 의학에 대한 전망이 자라났고, 그에 따라 미국 의학을 본토에서 직접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들의 숫자는 1940년대 말에는 십수 명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1950년대가 되면 수백 명에 이르는 의사들이 미국의 대학과 병원으로 전공의 수련, 단기 연수, 시찰을 위해 떠났다. 이들은 한국 의학의 모델을 미국 의학으로 전환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하였다.

당시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려는 시도는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관의 후원 아래 이루어진 유학, 한국전쟁에 파견된 미군 군의관 인맥을 활용한 유학, 그리고 자비로 떠나는 개인적 유학이었다. 먼저 관에서 후원하는 유학은 정부나 학교에서 선발한 사람을 미국의 협약 기관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1950년대 후반에 시행된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인 예시였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미국 대외활동본부의 후원 아래 미네소타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의 재건을 돕기로 협약한 프로젝트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교수 연수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의 젊은 교수들을 선발하여 미네소타대학(Minnesota University)에 파견하였다. 그를 통해 총 218명의 교수가 미국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의 교육을 받았고 15명이 박사학위를, 71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들은 미국에서 접한 교육 및 연구 방식을 귀국 후 한국에 이식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한국전쟁 시기에 형성된 미군 군의관들과 한국인 의사들 사이의 관계 또한 미국 의학의 한국 도입에 중요한 통로였다. 미군 군의관들에게 개인적으로 유학을 권유받아 미국에 다녀온 사람들도 있었

다. 일례로, 소아과를 전공한 고광욱(高光昱)은 함께 일하던 미군 중위의 추천으로 보스턴 소아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예방의학을 전공한 권이혁(權彝赫)은 한국전쟁 시절에 친분을 쌓은 미군 대위의 소개로 미네소타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 유학하였다.

1954년 귀국 전까지 코넬 대학교의과대학 내과 강사… 한국 최초 신경내과 전공

학교, 정부, 군대의 지원을 받아 유학길에 오른 앞의 사례들과 달리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비를 들여 미국에 의학을 배우러 가기도 하였다. 개인 유학은 관 차원의 유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전부터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온 전통적인 경로였다. 1947년 초 미군정이 사비 유학을 허가하자 그해 말까지 도미 유학생은 60-70명에 달하였고, 1948년 3월에는 123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중 의학을 전공한 사람은 15명이었다. 그들 중에는 미국의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미 한국에서 의학을 배운 뒤 전문의 수련을 받기 위해 미국의 병원에 들어간 사람이 더 많았다. 그들은 귀국 후 의과대학에서 교원으로 일하며 미국 병원의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데 기여하였다.

서석조의 유학은 위의 세 경로 중 마지막에 속하였다.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즉 한국의 교육 재건을 목표로 한 정부 차원의 유학 경로가 발달하기 이전에 미국으로 향한 해방 후 미국 유학생의 첫 세대였다. 그의 미국 유학은 전문의 수련이 목적이었다. 1949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세인트 바나바스 병원 에서 인턴 과정을 수료한 서석조는 1950년 7월 뉴욕주 록포트(Lockport)시의 나이아가라 결핵요양소(Niagara Sanatorium)에서 1년간 내과 수련을 받았고, 이듬해에는 뉴저지주의 저지시티(Jersey City)에 위치한 저지시티 메디컬 센터(Jersey City Medical Center)로 자리를 옮겨 1년간 내과에서 전공의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1952년 7월부터 2년간 뉴욕시의 벨뷰 병원 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은 뒤 1954년 11월에 귀국하기 전까지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 의과대학의 내과 강사로 활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석조는 신경내과라는 한국에 없던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하였고, 그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길렀다.

미국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1940년대 말 미국에 유학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 난관을 넘어야 하였다. 먼저 미국으로 유학 가려는 사람은 정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였다. 미국에서 유학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유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히 임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가령 동아일보의 한 기사는 “허다한 사람이 무계획적으로 유학이라 칭하고 미국에 갔으나 이들 가운데서 폐병 환자가 발생한다든가, 영어 실력의 부족으로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든가, 또는 학비가 없어서 거지 모양이 된다든가, 심지어는 반동분자들과 어울려 정부를 비판하고 다니며 파괴 행동을 한다든가 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들이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의 위신을 손상시킨다고 비판하였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949년부터 미국에 유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그 자격은 미국에서의 교육 과정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학문적 소양과 언어 능력, 그리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경제적 배경을 갖춘 사람이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라야만 배움의 목표를 달성하고 귀국하여 그 결실을 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런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 유학 여행권 교부 신청자 자격 심사 규정’을 발표하여 유학 희망자를 심사하였다. 



시간·생명 지키는 신경외과 수술 마스터

심뇌혈관 인적 네트워크 전국구 시스템 갖춰

신경외과는 위급한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과 중 하나다. 그만큼 수술과 시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야다. 그래서 의사들 조차 꺼리는 진료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또 가장 많은 환자들을 수술로 살리는 과이기도 하다. 순천향대 구미병원 신경외과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심뇌혈관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선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구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그 중심에는 13년간 구미병원을 지키고 있는 뇌 수술 마스터 여동규 교수가 있다.

글_전진용 사진_정지선

경상남도 진해가 고향인 여동규 교수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는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던 말쑥꾸러기였다고 회상한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정신을 좀 차렸어요. 그때부터 대학 입학 을 위해 진지하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여 교수의 학교 성적은 빠르게 올라가며, 공학자로서의 꿈을 꾸게 되었다. 그의 입학 최종 목표는 포항공대였지만 결국 이루지 못하고 선택한 과가 의대였다. “공학박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약사 삼촌과 삼촌 주변의 의사 친구분들을 보면서 의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차선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절대 후회는 없습니다.” 비록 차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최선이 되었다. 그에게 의대 생활은 너무 잘 맞았고 의과 공부도 재미있었다. 그는 차츰 의사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공의 시절을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보냈다. “그 시절 제가 의사로서 성장하는데 김범태 교수님 등 많은 도움을 준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경외과를 선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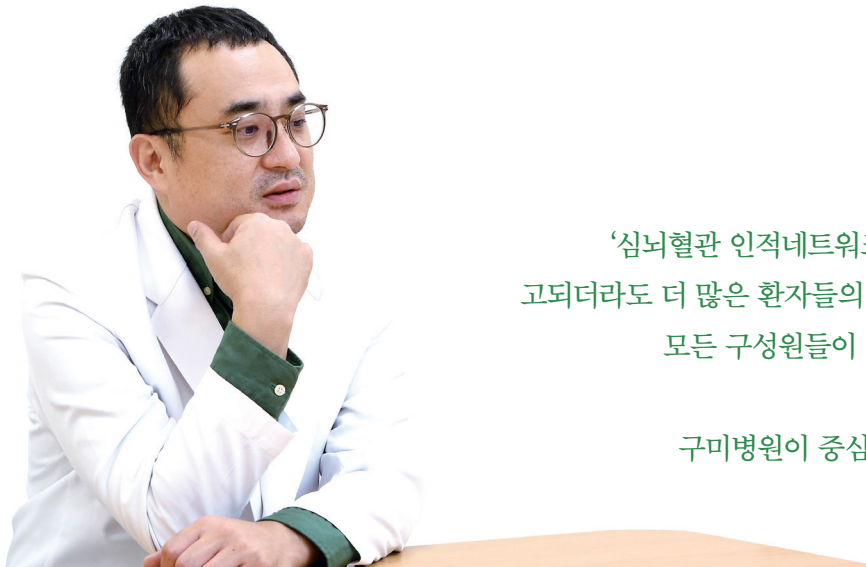
고되지만 보람된 시간과의 사투

여 교수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전공의 과정 후 구미병원에서

본격적인 신경외과 의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벌써 13년째 구미병원의 신경외과를 이끌고 있다. 이 13년은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었다고 회상한다. “신경외과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춘각을 다루는 환자들이 24시간 언제 올지 모르기에 항상 긴장하며 생활했습니다. 한밤중이나 새벽에도 환자가 발생하면 수술을 위해 달려가야 했거든요.” 신경외과는 급박한 수술이 주를 이루는 만큼 항상 위급한 수술 환자를 대해야 했다. 13년간 수많은 수술을 하며 환자를 살려왔다. 고되고 힘든 생활이지만 다시 건강을 찾은 환자를 보면서 그만큼 보람도 느끼며 생활했다. 그렇기에 단 한번의 후회도 없었다고 한다.

“구미병원 부임 후 첫 번째 수술 환자가 기억나네요. 만삭의 뇌경색 여성 환자였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되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딸이 중학교에 입학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죠.” 하지만 살리지 못한 환자들이 기억속에 더 길게 남아있다고 전했다.

“많은 환자들이 세상을 떠나는 과이기도 합니다. 제가 수술한 환자를 살리지 못했을 경우 한 번씩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는지 되짚어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을 떠난 환



“**‘심뇌혈관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은 몸은 조금 더 피곤하고 일이 고되더라도 더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실력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미병원이 중심에 있다는 점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의 사례가 여 교수에게는 최우선적인 연구 분야가 됐다. 더 많은 사례를 살펴보고 더 많은 연구에 집중했다. 그 결과 이제는 자타공인 최고의 신경외과 수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심뇌혈관인적네트워크 시범 사업 선정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과 여 교수를 비롯한 많은 관련 의료진의 노력 결과 올해 5월 보건복지부 주관의 ‘심뇌혈관 인적네트워크 시범 사업’에 선정됐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심뇌혈관 인적네트워크 시범 사업’을 통해 더욱 신속한 진료, 수술 시스템을 갖추어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전문의 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지역 협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여 교수는 ‘심뇌혈관 인적네트워크 시범 사업’에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의 책임 전문의를 맡았다. 여 교수를 비롯해 신경외과 2명, 신경과 3명, 응급의학과 6명 총 11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모두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며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분명 의미 있는 시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몸은 조금 더 피곤하고 일이 고되더라도 더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실력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미병원이 중심에 있다는 점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5개월 만에 전국구 시스템…수도권 주요 대학병원과 견줘도 손색없어

여 교수가 이끌고 있는 구미병원 신경외과는 시범사업 이전에도 관련 대부분의 긴급 수술과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였다. 여기에 이번 사업까지 더해지면서 보다 신속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수도권의 어떤 대학병원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시스템과 인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사업 선정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구미병원은 뇌졸중 및 뇌혈관 환자 수술과 진료를 더욱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중서부권 지역과 대구 지역, 인근 의료취약지역 환자들에게 24시간 신속한 수술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미병원과 여 교수는 지역 뇌혈관 질환 안전망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환자를 살린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시범 사업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응급 환자들의 수술과 진료 과정에 있어서 중간 과정이 많이 단축되었고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한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 특성상 신속성이 생명인데, 이 시스템

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4시간 항시대기로 밤낮없이 신속히 수술 진행

여 교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좀 더 고된 일과를 보내고 있다. 구미뿐 아니라 주변 지역 내 신속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면 평일과 주말, 밤과 낮 구분 없이 24시간 수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 교수는 “환자가 회복되어 다시 건강해진 모습을 보면 의사로서의 모든 고됨을 잊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여 교수와 구미병원의 노력은 환자를 살린 여러 미담을 만들어 내고 있다.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한 응급 환자는 여러 병원으로 찾았지만 수술하지 못하고 결국 구미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매우 성공적인 수술로 건강도 회복됐다. “진주에서 온 환자분은 지금도 우리 구미병원까지 꾸준히 외래진료를 오고 계십니다. 진주 지역 내에도 외래진료를 받을 곳이 있을 텐데 구미까지 오시는 모습을 보면 감사하죠.”

집 마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한 환자는 지역 병원에서 순천향대 구미병원으로 전원된 사례로 응급 수술 후 상태가 호전되어 현재는 재활병원으로 전원해 회복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또 다른 환자는 헬스 운동 중 갑자기 뒷목이 뻐뻐해지고 두통이 생겨 3차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수술 여건이 되지 않아 순천향대 구미병원으로 전원되어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 환자 역시 응급 시술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상태다. 이처럼 많은 환자들이 여 교수의 치료와 시범 사업을 통해 건강을 되찾으며,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다.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례도 있지만 안 좋은 사례들도 있죠. 저는 좋은 사례를 더 만들기 위해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게 제 역할이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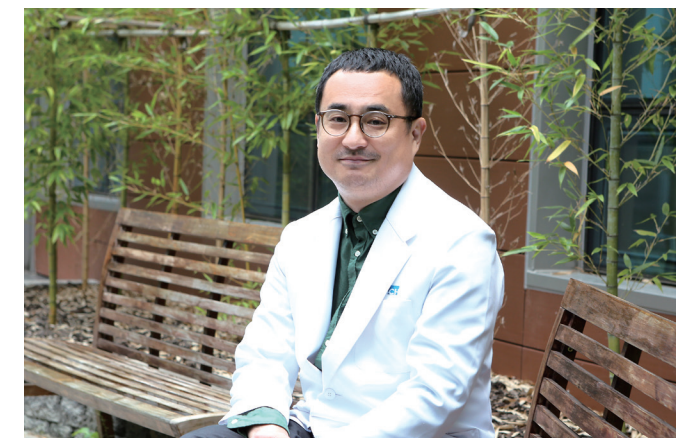
“건강 허락하는 한 신경외과 의사로서 병원 지킬 것”

여 교수가 꽤나 신경쓰는 분야는 건강이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응급 환자 진료와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면 사이클과 헬스 등으로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운동으로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지난주에도 이틀 동안 두 시간 밖에 못 잔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버틸 힘이 있고, 자다가도 연락을 받아 병원으로 뛰어나갈 수 있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신경외과 의사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신경외과 전문의로 구미병원을 지키며 환자를 도울 생각입니다.” 여 교수는 후배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요즘 일부 후배들은 의사라는 직업을 그저 돈을 잘 벌기 위한 직업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보다는 의사라는 직업의 사명감을 더 많이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 교수는 “모든 환자들이 안타깝지만, 어린 환자, 젊은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예후가 좋지 않은 사례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특히 이런 환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되려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환자들이 안타깝지만, 어린 환자, 젊은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예후가 좋지 않은 사례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이런 환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되려 힘쓰겠습니다.**”





글로벌 순천향, 그 중심에 ‘국제의료협력팀’ 있어

순천향대 서울병원 국제의료협력팀, 언어·문화 장벽 넘어 ‘순천향 인술’ 실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국제의료협력팀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몽골 등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있다. 이들은 단순한 의료통역을 넘어, 외국인 환자가 치료의 전 과정에서 불편함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제공한다. 홍보·마케팅, 송출업체 관리, 현지 설명회 개최, 통번역 및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국제의료협력팀의 역할은 그야말로 ‘순천향병원의 글로벌 창구’라 할 수 있다.

글_ 이미종(순천향대 서울병원 홍보팀장) 사진_ 서울병원 홍보팀 제공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국제의료협력팀은 외국인 환자의 한국 체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숙박 예약, 이동 서비스, 생활 지원까지 돕는다. 더불어 서울관광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외 의료설명회, 의료인 초청 연수, ‘순천향 환우의 밤’ 등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며 순천향 브랜드의 글로벌 이미지를 확장하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치료’를 함께합니다.” 이 한마디는 국제의료협력팀이 존재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준다.

원어민 수준의 다국어 인력, 환자와 마음으로 통하다

국제의료협력팀의 가장 큰 강점은 ‘언어’와 ‘공감력’이다. 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해외 거주 경험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어 7명, 몽골어 2명, 영어 1명 등 원어민 수준의 제2외국어 실력을 지닌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덕분에 외국인 환자들은 단순한 의학적 통역을 넘어, 문화적·정서적 이해 속에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다.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은 단지 말을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잇는 일입니다.”

이들의 말처럼, 국제의료협력팀은 타국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불안함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의 시작부터 회복까지 함께한다. 특히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외국인 환자 다빈도 진료과 교수진으로 구성된 ‘국제의료협력위원회’를 운영해, 환자 유치 단계부터 진료, 치료, 사후관리까지 긴밀한 의료 협력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국가별 환자의 특성과 질병 패턴에 맞춘 맞춤형 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병원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는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으로, 예전부터 외국인 환자들의 내원이 활발했다.

병원 인근에는 각국 대사관이 밀집해 있어 행정 절차의 편리함은 물론, 의료진과 직원 모두 외국인 진료 경험이 풍부해 외국인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다.

더불어 외국인 전용 국제병동과 언어권별 1:1 코디네이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문화적 장벽 없이 편안한 치료가 가능한 것도 순천향대서울병원만의 큰 장점이다.

중양아시아 시장 석권, ‘한국의 대표 글로벌병원’으로 자리매김

국제의료협력팀은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CIS 국가, 몽골 등 중양아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성과로 이어졌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4 외국인 환자가 많이 찾는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중양아시아·몽골 부문 주요 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며, 국내 대표 국제의료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올해 4월에는 팀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특히 방문 환자의 다수가 종합건강검진 및 암 치료를 위해 내원하고 있으며, 중양혈액내과(항암), 유방외과(유방암), 산부인과(부인암), 비뇨기과(비뇨기암), 이비인후과(두경부암/갑상선암), 신경외과(뇌종양) 등이 외국인환자의 주 진료 과목으로 꼽힌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이를 기반으로 해외 각국과의 의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현지 의료기관과의 협약 및 의료 인력 교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치료를 넘어, 신뢰와 감동을 전합니다”

국제의료협력팀의 목표는 단순한 ‘해외환자 유치 실적’이 아니다. 국제의료협력팀이 지향하는 것은 ‘환자 중심의 글로벌 의료 신뢰 구축’이다. 언어와 문화의 벽을 허물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며, 치료의 전 과정에서 ‘순천향의 따뜻한 인술’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국제의료협력팀이 세계로 향하는 이유다.

“우리는 한국을 넘어, 환자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국제의료협력팀은 오늘도 그 신념을 품고 국경을 넘어 달리고 있다. ■scu

MINI INTERVIEW

“국제 의료의 핵심은 결국 사람, 신뢰가 쌓여야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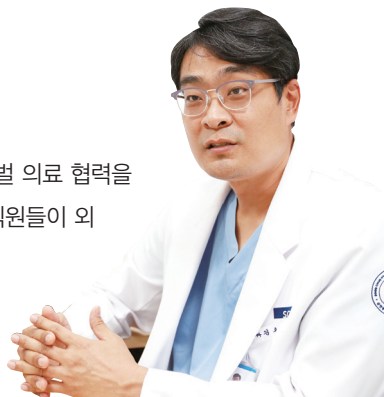
김용범 국제의료협력센터장(정형외과 교수)

김용범 교수는 서울병원의 국제진료를 총괄하는 국제의료협력센터장으로서 외국인 환자 유치와 글로벌 의료 협력을 이끌고 있다. 김 센터장은 해외 에이전시나 국외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병원을 홍보하는 동시에 병원 직원들이 외국인 환자를 잘 진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국제의료 경쟁력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들도 국제의료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나 규모가 훨씬 큰 병원들도 저희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람’의 차이입니다.” 특히 김 센터장은 외국인 환자를 맞이하는 통역 코디네이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직원들은 단순히 언어를 통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살피며 안내하고, 진료 전 과정에서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이런 진심이 환자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한 번 다녀간 환자들이 다시 우리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일은 국내 환자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진료 시간이 3배에서 5배 정도 더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은 먼 나라에서 찾아온 환자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진료해 주십니다.” 김 센터장은 이어 “외국인 환자를 본다고 해서 교수님들께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순수하게 환자를 향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진료에 임하는 모습이 우리 병원의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센터장은 “결국 국제의료의 핵심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의료진, 직원, 그리고 환자, 이들 사이의 신뢰가 쌓여야 진정한 국제의료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외국인 환자의 생명과 삶의 질을 높일 때 보람”

변형권 부센터장(이비인후과 교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국제의료협력센터 변형권 부센터장(이비인후과 교수)은 “외국인 환자는 통역과 문화 차이로 국내 환자보다 두세 배의 시간이 걸리지만, 치료 후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릴 적 영국에서 6년 반을 생활한 그는 외국어 소통에 익숙해 외국인 환자 진료나 해외 출장 시 언어 장벽이 거의 없다. “통역을 거치면 전달이 정확하지 않거나 시간이 배로 걸립니다. 직접 대화가 훨씬 효율적이죠.” 현재 국제의료협력센터는 카자흐스탄과 몽골을 주요 타겟국가로 삼고 현지 에이전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환자 유치와 진료를 진행 중이다. 그는 “과거 러시아권 환자가 많았지만, 최근 정세로 전략을 조정했다”며 “두 나라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환자 진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과 시간이다. “질문이 많고 세세한 설명을 위해 진료 시간이 국내 환자보다 두세 배 길다. 그래서 처음부터 부담을 느끼는 교수님도 있죠.” 그럼에도 병원은 각 교수님의 높은 전문성과 실력으로 신뢰를 쌓고 있다. 특히 진료 안내와 통역 인력을 전문화해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현지 환자들의 재방문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변 교수는 201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며 국제 의료 업무에 관심을 키웠고, 몽골·카자흐스탄 현지 상담도 직접 진행했다. 그는 “수술이 어렵다던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목소리를 잃지 않고 돌아갈 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느낀다”며 “외국인 진료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인 만큼, 교수님들의 헌신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고의 의료는 결국 따뜻한 마음을 더하는 것”

나미경 국제의료협력팀 팀장



서울병원은 서울 도심 속 글로벌 환자들의 의료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와 전담 관리를 총괄하는 국제의료협력팀 나미경 팀장이 있다. “의료 기술의 평준화 시대에는 진료 외 서비스가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의료협력센터에는 총 1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이 중 러시아어권 담당 코디네이터 7명, 몽골 담당 2명, 그리고 나 팀장이 전체 운영을 총괄한다. 대부분의 외국인 환자는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어권 국가와 몽골 출신으로, 센터는 입국 전 상담부터 진료·수술·회복·귀국 후 팔로업까지 전 과정 1:1 케어를 제공한다.

“다른 병원들은 국제의료협력센터 내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와 진료를 함께 하지만, 서울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팀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만큼 전담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지요.” 국제의료협력센터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두경부암 등 중증질환 환자 유치에 특화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러시아권 및 몽골 환자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중증질환은 의료 통역 난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디네이터들은 정기적인 의료 강의를 듣고, 질환별 전문 지식을 꾸준히 보완하고 있어요.”

서울병원의 또 다른 강점은 지리적 입지다. 용산구에 위치해 있으며, 카자흐스탄·몽골 대사관이 차량 5분 거리에 있다. 이는 환자들에게 비자 발급이나 공증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다. “국제병동에서는 남산타워와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명동, 강남, 종로 등 주요 관광지와도 10분 거리예요. 의료와 관광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메디컬 투어리즘’에 최적화된 환경이지요.” 나 팀장은 “의료는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진료의 품질은 기본이고, 그 위에 따뜻한 마음을 더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진심을 다한 서비스”

김예은 국제의료팀 사원



김예은 사원은 서울병원 국제의료협력팀에서 지난 6년 동안 통역 및 번역 업무를 비롯한 외국인 환자 관련 예산, 제반 서류 관리에 이르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사원은 타 병원과 비교하여 서울병원은 인간적인 접근을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말한다. “서울병원의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마음 씀씀이가 각별하고 어려운 검사도 성심껏 진행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하는 마음에 대해 김 사원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말한다. “고등학교 졸업까지 러시아에서 생활하며, 당시 의료 환경이 열악하여 아파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

는 이들의 ‘막막함’을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환자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잘 압니다. 더 잘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이러한 경험은 그녀에게 먼 곳에서 온 환자들에게는 더욱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만들게 했다.

국제의료협력팀의 핵심 경쟁력은 함께 호흡을 맞춘 팀원들 간의 견고한 ‘팀워크’이다. “2019년 팀 합류 이래 제가 막내이며, 팀원 모두 최소 6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베테랑들이예요.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는 높은 팀워크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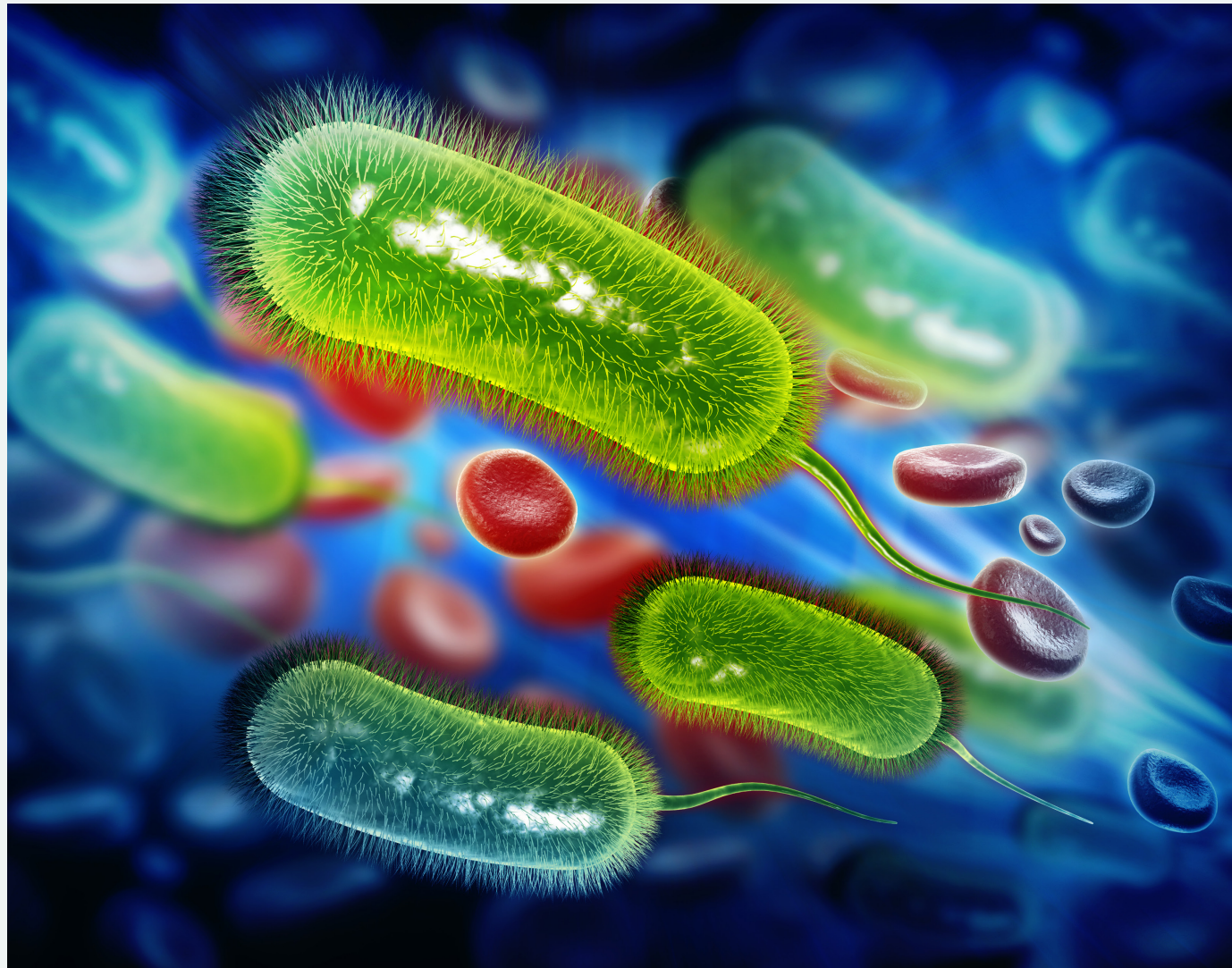
김 사원은 “국제의료팀 구성원 대다수가 외국인이거나 해외 거주 경험이 길어, 환자들의 입장을 더욱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팀의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SCH
ISSUE
서울병원



헬리코박터 치료, 2제 요법으로도 치료 가능

조준형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 연구 논문 발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조준형 교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자에게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성분명: 테고프라잔)와 고용량 아목시실린을 기반으로 제균 요법을 하면 효과적인 제균 치료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준형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국제학술지 SCI 논문인 미생물(microorganisms)의 2025년 최신호에 발표한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한 테고프라잔-아목시실린 2제 요법: 타당성 시험 연구(Tegoprazan-Amoxicillin Dual Therapy for Clarithromycin-Resistant Helicobacter pylori: A Feasibility Pilot Study)’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전 세계적으로 50%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만성 감염성 질환이며, 감염자의 위 점막에서는 수십 년간 활동성 감염이 지속된다. 헬리코박터균은 항생제로 박멸하는 제균 치료를 받지 않고서는 저절로 소멸되지 않는다. 치료받지 않은 감염자는 미감염자에 비해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까지 일으키고 위암 발생 위험도가 약 10~20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헬리코박터균은 한가지 항생제를 사용해서는 치료가 되지 않아 2~3가지 항생제를 위장약과 같이 2주간 투여해야 한다. 과거에는 3제 요법(프로톤펌프억제제 + 아목시실린 + 클라리스로마이신)을 1주간 치료했지만 헬리코박터균의 항생제 내성 발현으로 인해 점차 성공률이 감소되고 있어 치료 기간이 현재는 2주까지 늘어났다.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헬리코박터, 2제 요법으로도 효과 입증

조준형 교수팀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서울의 3차 대학병원에서 내시경 조직 검사 결과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이 있는 헬리코박터 감염자 57명을 대상으로 고용량 아목시실린 항생제 1가지를 2주간 처방했다. 복용법은 하루 3~4회로 환자의 치료 순응도는 100%로 우수했다. 복용 기간에 발생한 소화기 부작용 비율은 8%이며, 대부분 경미하여 약을 중단한 사례는 없었다. 연구 결과 과거 제균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초치료 환자는 과거 경험자보다 성공률이 30~40% 더 높았다. 이는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균의 경우에는 기존의 3제 요법보다 2제 요법이 부작용이 적고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준형 교수는 “헬리코박터의 가장 일반적인 치료는 3제 요법을 2주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부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이 확인된 환자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보여준 2제 요법을 복용해보는 것도 새로운 옵션이 될 수 있다”며 “다만 하루 3~4회까지 복용 시간을 잘 지켜야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환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준형 교수는 미래 미생물학(Future Microbiology) 저널에 ‘헬리코박터 진단과 치료: 과거, 현재, 미래’ 주제로 종설을 출판하여 관련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11월에 개최되는 한국 소화기병 주간 학술 대회(KDDW 2025)에서 초청 강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SCH
ISSUE

부천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 AI 기술로 생명 지킨다

숨은 징후 빠르게 감지해 환자 생명 지키는 ‘스마트 병원’ 구현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응급 뇌졸중 선별 AI 기술’을 활용해 비조영 CT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첨단 의료 AI 기술을 잇달아 도입하며 ‘스마트 병원’으로 도약하고 있다. 심정지·뇌졸중 같은 응급질환의 숨은 징후를 빠르게 포착하고,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로 환자 안전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일반 병동 환자의 활력징후를 분석해 24시간 내 심정지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AI 기술을 2023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환자의 나이, 맥박, 혈압, 호흡, 체온 등을 분석해 위험도를 수치화하고, 신속대응팀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한다.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응급 뇌졸중 선별 AI ‘휴런 스트로케어 스위트(Heuron Strocure Suite)’를 응급실에 도입했다. 비조영 CT만으로 3분 내 뇌

출혈과 대혈관 폐색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 뇌졸중 의심 환자를 자동 판별해 의료진에게 즉시 알림을 보낸다. 이를 통해 응급실 도착부터 혈전제거술 시작까지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올해 들어 4개의 의료 AI 기술을 새로 도입해 심장 및 뇌 질환 진단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심전도 기반 AI 기술은 심부전, 급성심근경색, 발작성 심방세동을 조기에 찾아내 응급실과 외래에서 신속한 치료 결정을 지원하고, MRI 기반 뇌졸중 판별 AI 기술은 허혈성 뇌졸중 병소를 자동 판독해 치료 방침 수립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더 나아가, 추가적인 AI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문중호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의료 AI 기술은 환자의 숨은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는 혁신적인 도구”라며 “앞으로도 최신 의료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는 스마트 병원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SCH
ISSUE

부천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로봇수술 4,000례 돌파

암 환자 수술 비율 48%, 고난도 로봇수술 선도
산부인과 로봇수술 2,000례 돌파... 여성 환자 만족도 높아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로봇수술 4,000례를 돌파했다. 지난 10월 17일 비뇨의학과 이상욱 교수가 4,000번째 로봇수술을 집도했으며, 이는 로봇수술기를 도입한 지 8년 6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로봇수술센터는 2017년 4월 경인 지역 최초로 다빈치 Xi를 도입했으며, 2024년 4월에는 최신형 다빈치 SP를 추가로 도입했다. 이후 다빈치 Xi 로봇수술 국내 최단기간(3개월) 100례 돌파, 경인 지역 최단기간(1년 4개월) 500례 돌파 등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지역 로봇수술 거점센터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각종 암 수술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에 로봇수술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전체 4,000례 중 암 환자 수술이 48%를 차지했으며, 진료과별 암 수술 비율은 이비인후과 82%, 비뇨의학과 80%, 외과 60%로, 고난도 암 수술과 중증질환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로봇수술은 약 0.8cm 크기의 미세 절개로



순천향대 부천병원 비뇨의학과 이상욱 교수(둘째 줄 우측에서 3번째)와 로봇수술센터 의료진이 4,000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좁은 부위에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 주변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고 출혈, 통증, 흉터를 줄인다.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 위험이 낮아 환자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산부인과 수술이 2,000례(전체의 50%)를 차지해 여성 환자의 미용적 만족도와 가임력 보존 측면에서 탁월한 장점을 입증했다.

정수호 순천향대 부천병원 로봇수술센터장(산부인과 교수)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연구와 환자들의 신뢰 덕분에 지역 대표 로봇수술센터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난도 맞춤형 로봇수술을 통해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 치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CH ISSUE

천안병원



천안병원, 새병원 개원 후 첫 생체 간이식 시행 최첨단 중환자 케어 시스템과 전문 의료진 협업 결과



기증자와 수혜자가 창문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는 구조로 설계된 이식환자 전용 중환자실

천안병원이 새병원 개원 후 첫 생체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간이식을 받은 환자는 이 모 씨(40대, 여)로 지난 7월 순천향대천안병원에서 알코올성 말기 간경변을 진단받았다. 이 씨의 유일한 치료법은 간이식 뿐. 다행히도 환자의 아버지가 기증자로 나섰고, 병원 장기이식센터(센터장 배상호)는 지난 9월 24일 12시간의 대수술 끝에 생체 간이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수술은 외과 장기이식팀(배상호·김혜영·정해일·이현용·김영길·서승희 교수)이 집도했으며, 환자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 10월 14일 건강하게 퇴원했다.

담당 주치의인 김혜영 교수는 “장기이식 분야의 꾸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성공적인 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새병원 개원 후 달라진 최첨단 중환자 케어 시스템이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도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말처럼 이번 생체 간이식은 새병원에 도입된 최첨단 중환자 의학 시스템의 성과로도 평가된다. 이식 환자가 수술 후 입원하는 병원 외과계중환자실(SICU)은 전체 병상이 1인실의 독립된 구조로 설계돼 환자들의 빠른 치료와 회복을 돕는 집중 치료실을 제공한다.

김진영 중환자실장(호흡기내과)은 “이식 환자는 전용 치료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증자와 수혜자가 각자의 방에서 창문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는 구조로 설계돼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서적 안정을 주는 최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환자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기증자는 12일, 수혜자는 21일만에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다. 배상호 장기이식센터장은 “생체 간이식은 여러 진료과의 협업과 체계적인 시스템, 의료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새병원의 첨단 시스템과 의료진 역량을 바탕으로 이식 환자들의 생존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천안병원은 1990년대 지역 최초 신장이식을 시작으로 수많은 장기이식수술로 새생명을 되찾아주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간이식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들을 거둬들여 지역 장기이식분야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SCH

SCH ISSUE

구미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지역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봉사 펼쳐

캄보디아 대사관과 협력해 150여 명 진료



김성호 교수(신경외과, 의료봉사단장)



안대형 교수(치과)



박윤선 교수(소화기내과)



전동수 교수(산부인과)

구미병원은 지난 10월 25일(토) 본원 종합건강증진센터에서 경북 구미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순천향대 중앙의료원과 주한캄보디아 대사관 간의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추진된 행사로, ‘인간사랑·생명존중’의 순천향 설립이념을 실천 하고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진료과 참여로 실질적 건강 지원

이날 의료봉사에는 김성호 의료봉사단장(신경외과 교수)를 비롯해 박윤선 교수(소화기내과), 전동수 교수(산부인과), 안대형 교수(치과), 강승림 교수(영상의학과) 등 주요 진료과 교수진과 간호부, 영상의학팀, 진단검사의학팀, 약제팀 등 총 44여 명이 참여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진료는 ▲복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 ▲골밀도 검사 ▲심전도 ▲혈액·소변검사 ▲혈압·혈당 측정 ▲흉부 엑스레이 ▲구강 검진 등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으며, 무료 스케일링과 의약품 지원도 함께 이뤄져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백승주 사회복지사가 ‘자살예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사회 적응을 돕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성호 의료봉사단장은 “낮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이번 봉사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건강을 챙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의료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SCH

남성 동성애자 대상 PrEP의 효과와 안전성 입증

백예지 순천향대 서울병원·최준용
세브란스 교수팀 연구 논문 발표



프렙이 HIV 감염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감염 예방



국내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HIV 노출 전 예방요법(pre-exposure prophylaxis, 이하 '프렙 요법')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됐다. 프렙이란 HIV 감염 고위험군(파트너가 HIV감염인, 남성 동성애자 등)이 매일 하루 한 알 HIV 치료제를 복용하는 요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프렙을 HIV 예방의 핵심 전략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백예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최준용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구팀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20세 이상 HIV 음성 남성 동성애자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HIV 예방을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TDF)와 엠트리시타빈(FTC) 기반의 프렙을 연구 대상자에게 매일 제공하고, 평균 392일간 추적 관찰했다.

부작용 없이 감염률 1% 미만으로 낮춰

TDF와 FTC는 HIV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증식하지 못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염을 예방하는 HIV 노출 전 예방 효과가 입증된 약이다. 그 결과 참여자의 77%의 참여자가 프렙을 복용했고, HIV 신규 감염은 100명당 1명 미만(발생률 0.98명)에 불과했다. 또한 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간·신장 기능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다. 프렙 복용으로 인해 무분별한 성관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위험 보상 행동'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상자들이 병원을 방문해 다른 성매개 감염병 치료를 받는 긍정적 효과도 확인됐다.

백예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프렙이 HIV 감염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감염 예방 전략이라는 점을 입증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백예지·최준용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J Korean Med Sci'에 '한국 PrEP 치료에서의 성적 위험 보상 및 유지: HIV PrEP 시범 연구(Sexual Risk Compensation and Retention in PrEP Care in Korea: An HIV PrEP Demonstration Study)'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scif](#)



백예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오후만 되면 눈이 감기고 힘 빠진다면... 혹시 '중증근무력증'?



중증근무력증은 완치보다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자주 처지거나 사물이 겹쳐 보이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친다면 '중증근무력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신경 신호 전달 문제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

중증근무력증은 몸의 면역체계가 정상 조직이나 장기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 중 하나다.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부위(신경근육접합부)의 수용체가 자가항체의 공격을 받아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쉽게 피로해진다.

국내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10~13명 정도이며, 매년 새롭게 진단되는 환자는 10만 명당 약 2명 안팎이다.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주로 20~40대 여성과 50대 이후 남성에서 많이 발병한다.

오후에 증상 심해지는 '일중 변동'이 주요 단서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눈꺼풀 처짐(안검하수)',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다. 점점 얼굴·목·팔다리 근육이 약해져 말을 오래 하면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음식을 삼키기 힘들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다. 피로하면 증상이 악화하고 휴식을 취하면 호전되다 보니, 피로나 심리 문제로 오해해 조기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전보다 오후에 증상이 심해지는 '일중 변동'이 다른 신경·근육 질환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열쇠

진단은 혈액검사로 자가항체를 확인하고, 반복신경자극검사,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등을 진행한다. 특히 환자의 10~30%에서 흉선종이 함께 발견되므로 흉부 CT 검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치료 목표는 '증상 조절'과 '부작용 최소화'다. 증상 조절 약물인 '피리도스티그민(Pyridostigmine)'을 비롯해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을 사용하며, 약 부작용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흉선종이 있는 환자는 수술로 종양을 제거해야 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최소 침습 흉강경 수술이나 로봇수술 등을 시행한다.

두려움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해야

중증근무력증은 완치보다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다. 조기에 진단받고 꾸준히 치료하면 대부분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 감염,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더운 환경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하고, 일부 항생제·진정제·마그네슘제제 등 약물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다른 진료과에서 처방받을 때는 반드시 중증근무력증 환자임을 알려야 한다. 최근에는 자가항체에 따라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새로운 표적 면역치료제도 국내 도입을 앞두고 있어 치료 전망은 더욱 밝아지고 있다. 중증근무력증은 희귀·난치질환으로 분류되지만,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만 한다면 두려운 병이 아니다. 환자와 가족이 함께 관리해야 할 질환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



김지은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과 교수



뇌혈관 질환, 시술·수술 가능한 하이브리드 수술실 치료효과 크게 높인다

뇌혈관 질환, 위험한 경우에는 최근 하이브리드 수술실 치료가 큰 주목



뇌혈관 질환은 크게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는 형태로 나뉜다. 대표적으로 뇌동맥류 파열, 뇌혈관 기형, 뇌동정맥기형 등이 있다. 이들 질환은 혈관 내 시술이나 개두 수술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복잡하거나 위험한 경우에는 단일 치료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는 치료로 최근 하이브리드 수술실 치료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시술·수술 동시 가능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뇌혈관 수술은 미세현미경 개두술과 뇌혈관 내 시술을 하나의 수술실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수술 방법은 따로 진행을 위해 여러 번 전신마취를 하거나 한 가지 수술만으로 치료가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이런 한계를 극복한 수술로써 효과적인 맞춤형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개두술·혈관내 시술 장점 결합

하이브리드 수술은 개두술의 정확성과 혈관 내 시술의 최소 침습성이란 장점을 결합한 수술이다. 개두술 시행 중에도 뇌혈관조영술을 통해 병변의 변화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각각의 수술로 접근이 어려운 부분을 서로 보완할 수 있어,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복잡한 뇌동맥류 혹은 뇌혈관 기형의 경우 개두술 혹은 혈관 내 시술만으로 치료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하이브리드 뇌혈관 수술을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어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한다. 하이브리드를 이용한 뇌혈관 수술은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 이뤄진다. 전신마취 이후에 환자는 추가 이동 없이 개두술과 혈관 내 시술, 뇌혈관 조영술 등을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마취 회복 전, 수술결과 확인 가능

하이브리드 수술실의 수술은 기존 수술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 중 각각의 수술로 전환이 매우 손쉽게 이뤄진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를 통해 마취 중 환자의 안정성이 올라가고 수술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치료법의 장점을 결합하여 한 번의 수술로 완치가 가능해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개두술만 가능한 예전에는 수술 후 검사를 하기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하이브리드를 이용하면 마취 회복 전 미리 수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금 더 안전하고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장할 수 있다.

성공률 및 예후 크게 향상

하이브리드를 이용한 수술은 치료 성공률과 장기 예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뇌출혈 환자를 집도했고 하이브리드 수술을 통해, 혼수상태에서의식이 회복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수술 후 신경학적 손상이나 장애 발생률도 낮출 수 있어 환자의 예후에 큰 기여를 한다.

최첨단 수술법 ‘환경 갖춘 숙련된 전문의에게’

하이브리드 뇌혈관 수술은 첨단 기술과 의료진의 숙련도가 접목된 최첨단 수술법이다. 따라서 뇌혈관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뇌혈관 질환은 증상이 없거나 가볍더라도 방치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조기에 진단받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국가 지정 충남 유일의 충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뇌혈관 질환에 대해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고, 하이브리드를 이용한 뇌혈관 수술과 시술 모두 가능한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기용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



고관절 주위 골절의 진단과 치료

고관절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고관절 주위 골절이란? 고관절 골절은 노년층에서 특히 흔하게 발생하는 심각한 부상으로, 허벅지뼈의 윗부분과 골반 뼈의 연결 부위에 생기는 골절이다. 대부분 낙상과 같은 경미한 외상으로 발생하며, 특히 골다공증을 가진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골절이 발생하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다리를 움직이기 어렵고 서거나 걷는 등의 기본적인 일상 활동이 어려워진다. 누워 있을 때는 부러진 다리가 짧아 보이거나 바깥쪽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골절 부위나 주변 혈관의 손상으로 인해 어지럼증, 붓기, 멍, 그리고 주변 부위까지 퍼지는 연관 통증이 동반될 수 있다. 이러한 고관절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진 문제를 넘어, 장기간 침상 생활로 이어져 폐렴, 욕창, 혈전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크게 증가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고관절 골절 치료 방법

고관절 골절의 치료는 대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주요 수술 방법으로는 골절 부위를 나사, 금속판 그리고 긴 금속정 등으로 고정하는 골절유합술(내고정술)과 손상된 고관절 부위를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골절의 심각도나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반치환술(부분 치환) 또는 전치환술(전체 치환)로 나뉜다. 또한, 일차 치료가 실패하거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치환술이나 재치환술 등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 치료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다.

고관절 골절 치료 과정의 문제

뼈가 붙고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는 길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견고한 내고정이 되었거나 불안정성 없이 인공관절 수술이 잘 된 경우에는 걷는 연습 후 수일 이내에 낮은 보행기나 목발 등을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치유 과정 중 이전에 시행한 내고정물이 부러지거나, 인공관절이 헐거워지거나 탈구되는 문제, 감염, 대퇴 골두 골괴사(그림 참조)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관절 골절 환자분들은 고관절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의 적절한 수술과 충분한 재활치료가 회복 속도를 높이고,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핵심요인이기 때문이다. 고관절 주위 골절이 발생하면 119를 통해 이송하므로 병원을 선택할 여지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취과, 내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을 선택하면 협진을 통해 수술부터 재활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관절 골절은 대부분의 정형외과 의사들이 무리없이 내고정술을 시행하지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속 내고정물 파손, 탈구, 감염 그리고 대퇴 골두 골괴사(그림 참조) 등 합병증까지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수술을 담당할 의료진을 선택할 때에는 골절 뿐만 아니라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경험이 풍부한 정형외과 전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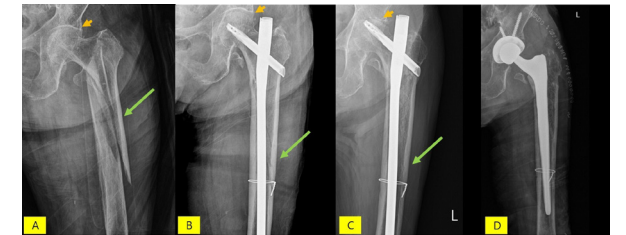


그림. 90세 고령의 환자로 좌측 근위 전자부 불안정성 골절(A)로 타 대학병원에서 금속정 수술을 하였으나(B), 수 개월 지나서 골절 부위는 잘 유합되는 듯(긴 화살표) 하지만 고관절내에서는(짧은 화살표) 금속의 움직임과 골두 골괴사, 그리고 관절염 소견이 보여서(C) 순천향대 구미병원 정형외과에서 고관절 전치환술로 전환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함(D).

를 찾는 것이 좋다. 추후 발생할 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고관절 수술 및 골절치료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에 맞춤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복잡하고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고관절 골절이 의심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숙련된 의료진의 체계적인 진료를 통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

고관절 골절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 없이는 환자의 일상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적절한 수술과 체계적인 재활 과정을 거치면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골절 발생 시 두려워하지 말고 고관절 분야 전문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SQR](#)



조수현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정형외과 교수

차세대 디지털 병리 시스템

DIGITAL PATHOLOGY SOLUTIONS

순천향대 부천병원,
디지털 병리 시스템 구축

특장점

- 조직 검체 슬라이드를 디지털 이미지로 스캔해 저장하고, 분석·전송 처리하는 장치
- 초고해상도 병리 슬라이드 스캐너로 미세한 세포·조직 구조까지 선명하게 구현
 - 대량 병리 슬라이드의 빠른 디지털 전환 가능
 - AI 기반 형태 계측 자동화로 분석 속도 및 정밀도 개선
 - AI 기반 예후 예측 모델, 암 분자 병리 이미지 분석, 치료 반응 예측 솔루션 등 추후 활용 범위 확대 가능
 - 추후 순천향대 중양의료원(서울·천안·구미병원)으로 디지털 병리 네트워크를 확대해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진단·치료 서비스 제공 가능

환자 이점

- 더 정확하고 빠른 진단, 오진 가능성 감소
- 맞춤형 치료 전략 제공
- 디지털 슬라이드의 장기 보관으로 재진단·추적 관찰 용이



‘제8회 아산시 건강박람회’ 참여해 지역 건강증진 동참

순천향대학교(총장 송병국) SCH RISE 공공보건 의료서비스개선센터가 10월 25일 아산시 신정호 일대에서 열린 ‘2025 제8회 아산시 건강박람회’에 참여해 건강박람회 부스 운영과 걷기 캠페인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아산시보건소가 주관해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과 가족 등 약 3천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학생 53명은 행사 운영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의 역할을 실천했다. 또 학생들은 10개의 건강체험부스에서 체력측정마음안심버스 및 스마트드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민 안내와 질서 유지 및 홍보 활동 등을 수행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 공존 봉사활동 성료
청소년과 대학생이 함께한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순천향대(총장 송병국)는 순천향사회공헌센터가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한 ‘2025년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돼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사회구성원 관계 개선(다문화)’을 주제로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산시를 비롯한 충남 지역에서 증가하는 다문화 거주 인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학생과 청소년이 함께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공존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향사회공헌센터는 국제통상학과 봉사동아리 ‘하나’ 소속 학생 25명과 함께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다문화 거리 플로깅 △다문화 화합 벽화 제작 등 3단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AI로 여는 바이오헬스 미래” 순천향대, 유니크바이오텍과 MOU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이 10월 23일 교내 대학본부에서 유니크바이오텍과 AI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혁신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유니크바이오텍은 안전하고 독창적인 기능성 식품을 연구·생산하는 바이오벤처 기업이다. 프로폴리스 등 천연 소재 기반 건강기능식품 연구와 특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AI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실습 환경 구축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산학공동 캡스톤 프로젝트 운영 △글로벌 시장 진출 기술 검증(PoC) 및 사업화 추진 △바이오산업 연계 지역 특화 스마트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순천향대, ‘미래 신직업 만들기 Jobplendor’ 성료
미래 진로 설계부터 실행 전략까지…창직 역량 강화 위한 실천형 프로그램 운영

순천향대학교는 지난 10월 1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2025 학년도 미래 신직업 만들기 Jobplendor’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급변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고, 미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 학생들은 단순한 강의형 교육이 아닌 워크숍 중심의 실천형 과정을 통해 미래 직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창직의 전 과정을 경험했다. 특히 AI와 자동화로 인한 직업 변화에 대응해 개인의 적성과 역량을 반영한 새로운 직업 모델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암신속지원센터 세미나 성료



제2회 암신속지원센터 심포지엄을 10월 17일 동은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암신속지원센터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유방암 수술의 과거와 미래’, ‘뇌종양의 종류와 수술적 치료’, ‘췌장암의 조직학적 진단’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의뢰 우수와 및 교수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준우 순천향대 서울병원 전공의, 조혈모세포 기증

김준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전공의(정형외과)가 최근 이름 모를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새로운 생명을 선사했다. 의정사태 등 의료계 어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생명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김 전공의의 아름다운 나눔은 우연이 아니었다. 김 전공의는 지난 2021년 순천향대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재학 시절 중앙혈액내과 실습 중 고통받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고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서류에 서명했다.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대응 세미나 개최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지난 9월 29일 청원홀에서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도균 아동보호위원회 위원장(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이 연자로 참여했으며 아동학대 및 폭력 대응방안과 신고요령 등을 소개했다.



제이드케이파트너스 김중선 대표, 병원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제이드케이파트너스 김중선 대표는 10월 22일 순천향대 서울병원을 찾아 병원 발전기금 총 1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김중선 대표는 건강과학CEO과정 37기로 순천향의 발전을 위한 기부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기부금은 병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재현 비뇨의학과 교수, 세계 상위 2%연구자 선정

김재현 비뇨의학과 교수가 글로벌 정보분석 및 학술출판 기업 엘스비어(Elsevier)와 스탠퍼드대(Stanford University)가 공동 발표한 ‘2025 세계 최상위 2% 연구자(World’s Top 2% Scientists)’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 최상위 2% 연구자’ 명단은 22개 학문 분야와 174개 세부 분야에서 최소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스코퍼스(Scopus)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논문 피인용도, h-인덱스 등 6개 주요 지표를 종합 분석해 선정한다. 김재현 교수는 최근 10년간 뛰어난 학술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2024년 10월 김세철학술인상을 수상했다. 10년간 200편 이상의 논문을 국제학술지 및 다수의 논문인용지수(IF) 10점 이상의 저널에 주저자로 발표하여 학술적 업적을 인정받았다.



‘신개념 투석혈관 형성술(HeRO Graft)’ 도입

부천병원 혈관외과가 국내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신개념 투석혈관 형성술(HeRO Graft)’을 최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시술은 국내 18번째, 경인 지역 8번째 사례다. HeRO Graft는 양팔의 혈관이 막혀 더 이상 투석 혈관을 만들 수 없는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새로운 혈액투석 통로를 제공하는 최소·필수 치료 재료다. 기존에는 팔의 혈관이 모두 막히면 다리에 투석 혈관을 만들 수밖에 없었으나, 이 경우 보행이 불편해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술 환자는 10년간 투석을 받아 왔으며, 팔의 혈관이 모두 막혀 얼굴과 목, 팔이 심하게 부어 있었다. 진하나 혈과외과 교수는 “시술 4주 후 인공혈관이 조직과 안정적으로 붙으면서 환자는 우측 팔을 통한 혈액투석이 가능해졌고 부종이 사라져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행정 워크숍 2025’ 성료

부천병원은 10월 24일 항실대강당에서 ‘행정 워크숍 2025’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함께 가는 병원 행정, 함께 여는 병원 미래’를 주제로, 병원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 병의원과의 진료협력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력 병의원 행정 관계자와 문중호 병원장, 이유경 연구부원장, 이종식 사무처장, 행정 직원 등 26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세션 1 ‘강소병원을 위한 행정 역량 강화 및 진료협력 활성화’ ▲세션 2 ‘순천향대 부천병원 행정업무 개선 사례’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특히 ▲‘병원 수익을 높이는 심사 실전 노하우’(보험심사팀) ▲‘효율적인 환자 관리와 병원 성과를 위한 의료 AI 도입’(전략기획팀) 등 부천병원의 행정 혁신 사례와 실무 전략이 공유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성수 류마티스내과 교수, 의학서적 ‘통증의 베일을 벗기다 - 염증과 감각의 숨겨진 과학’ 출간

정성수 교수가 의학서적 ‘통증의 베일을 벗기다 - 염증과 감각의 숨겨진 과학’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단순히 통증의 원인만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치료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만성 질환의 근본적인 회복 원리를 다뤘다. 특히 ‘신경성원성 염증’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임상 경험을 토대로 자세히 다뤘다. 책에서는 인체가 지닌 자연치유력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신경·면역·호르몬·장내 미생물 등 인체의 여러 조절 체계를 통합된 관점에서 조망했다. 이를 통해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치료 접근법을 제시했다.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을 위해 미주신경 조절, 교감신경 균형 회복, 전기 자극 침 치료, 신경 기능 회복 주사(INMAS) 등 신경·면역 조절을 활용한 통합 치료 원리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박준식 산부인과 교수, ‘제9회 부인종양의학상’ 수상

박준식 교수가 최근 열린 제30차 대한부인종양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제9회 부인종양의학상(학술대상 부문)’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최근 3년간 주요 국제 학술지에 다수의 임상시험 및 중개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부인암 연구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대표적인 연구 성과인 ‘BRCA1/2 변이 여부에 따른 난소암 중앙 침윤 CD8 T 세포의 면역학적 특성과 PD-1 억제제에 대한 반응성의 차이’에 대해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박 교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부인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추석 연휴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 방문

천안병원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문했다. 김 총리의 방문은 응급의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 응급의료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천안병원 6층 제1강당에서 의료진 의견 청취 후, 충남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응급의료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심세훈 교수팀,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인과 규명

천안병원 심세훈 교수팀(정신건강의학과)이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요인과 뇌신경생리학적인 요인 간의 연관성을 새롭게 규명했다. 비자살적 자해(NSSI, Non-suicidal Self-Injury)는 자살하려는 의도 없이 자신의 신체에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심세훈 교수는 원광대병원 윤성훈 교수(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 51명과 자해 행동이 없는 청소년 50명의 뇌파를 비교·분석했다. 두 집단의 ▲심리적 특성 ▲실행기능 과제(go/nogo) 수행력 ▲신경 활성도의 감소를 보이는 뇌 영역 위치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자해 청소년은 특정 뇌 전극(nogo P3)의 뇌파 진폭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자해를 억제하기 위한 조절력이 손상되고, 주의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사업으로 수행됐으며, ‘비자살적 자해가 있는 청소년의 전기신경생리학적 특징’을 주제로 국제학술지 ‘정신의학 최선연구(Frontiers in Psychiatry)’ 2025년 8월호에 게재됐다.



의료 질 높고 진료비 낮은 병원 선정

천안병원이 의료 질 높고, 진료비 낮은 병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합리적 진료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결과를 공인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은 최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실태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의료기관 회계자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을 토대로 시행했으며, ▲비급여율 ▲표준화 사망비 ▲진료비 고가도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순천향대천안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과 함께 의료 질 높고, 진료비 낮은 병원에 선정됐다.



장시형 교수팀, 유방암 표적치료 차세대 진단 기술 공동 개발

천안병원 장시형 교수(병리과)가 공동연구를 통해 유방암 환자의 HER2 표적치료 적합 여부를 정밀하게 판별하는 차세대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 한양대의대, 순천향대천안병원, 서울대병원, ㈜옵토레인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이번 기술은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Small Methods’(IF 10.7)에 게재됐다. 암유전자가 증폭돼 단백질이 과발현되는 HER2 양성 유방암은 전이 속도가 빠르고 공격적이어서 표적 치료가 필수적이다. 연구팀은 ㈜옵토레인의 ‘디지털 실시간 PCR(drPCR)’ 기술을 활용해 HER2 유전자 증폭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판독자의 현미경 해석에 의존한 분석 방식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전자동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술은 기존 수 일이 걸리던 검사 진행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함과 동시에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한다. 실제 유방암 환자 3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결과 기존 보다 높은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였다.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HER2 양성으로 분류된 환자 중 약 20%가 drPCR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수정 판정됐고,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에서 drPCR HER2 양성 환자군에서 암의 완전관해(pCR)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기존 검사(57%)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표적치료제 반응 예측력을 보였다.

이화영 교수, 정부지원 학술연구 기반 구축 사업 선정

천안병원 이화영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R&D)’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화영 교수는 ‘韓·英 유전체-신경영상 빅데이터 공동활용: 맞춤형 비침습적 뇌 자극 프로토콜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 전략 제시’를 주제로 3년간 6.9억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한국과 영국에서 일반인 120명을 선별해 ▲경두개직류자극 ▲경두개초음파자극 ▲경두개 자기장자극 등의 검사 후 뇌 신경가소성 변화를 뇌영상·유전체 데이터와 함께 분석한다. 이를 통해 뇌 자극 반응과 관련된 유전자 마커를 발굴하고, 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등 예측 가능한 환자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연구책임자인 이화영 교수를 중심으로 순천향대 의료과학과 김정안 교수, 영국 노팅엄대 심리학과 정제영 교수, 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현아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왼쪽부터 순천향대천안병원 장시형 교수, 한양대의과대학 이정연 교수, 서울대병원 유한석 교수, ㈜옵토레인 이도영 대표

경북광역새싹지킴이병원인 구미병원은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2025년 경북 새싹지킴이병원 슬로건 공모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9월 19일(금) 본원에서 본원 수상자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북지역 11개 새싹지킴이병원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새싹지킴이병원은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비전과 가치를 직원들이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슬로건을 직접 제안하는 참여형 공모전으로 기획됐다. 슬로건은 아동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모두가 새싹지킴이, 함께하는 아동보호의 시작"이 최우수 슬로건으로 선정됐다. 김성수 아동보호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은 아동 보호의 의미를 경북지역 새싹지킴이병원들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대피해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미병원은 앞으로도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 간담회·세미나를 진행하여 경북지역 아동보호 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교직원을 위한 '힐링음악회' 개최

구미병원은 16일 오후 5시 30분 본원 외래관 1층 로비에서 환자, 보호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힐링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구미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구미아리랑코러스가 무대를 꾸몄다. 구미아리랑코러스는 지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다양한 사회·문화 행사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시민들에게 음악적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다가오는 가을을 맞아 열린 이번 음악회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합창과 오페라나 연주, 소프라노 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세시봉 메들리' 등 대중에게 친숙한 곡들이 합창으로 울려 퍼지자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교직원들까지 함께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경대 병원장은 "이번 연주회를 통해 모두가 잠시나마 위로와 희망을 얻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따뜻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구미병원

'다같이 더가치' 2025년 환자안전 주간행사 실시

구미병원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환자안전주간행사'를 개최했다. 환자안전주간행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환자안전의 날'(9월 17일)을 함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환자 및 보호자, 교직원에게 올바른 환자안전문화를 알리고자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주관한 '다같이 더가치 환자안전 캠페인'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캠페인 주제인 '소아를 위한 안전한 의료'에 맞춰 소아 환자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환자 안전 약속을 담은 키링 만들기 ▲안전관련 퀴즈 풀기 ▲환자안전 다짐스티커 채우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환자·보호자·교직원이 함께 행사에 참여하여 환자안전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참여자 모두에게 소정의 선물이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다. 민경대 병원장은 "구미병원은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를 운영하며 소아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아를 포함한 모든 내원객을 대상으로 환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 및 강화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2025년 임산부 배려 캠페인 실시

구미병원은 10월 13일 임산부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20회 "임산부 교직원 배려 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사에는 민경대 병원장, 김진현 사무처장, 임현숙 간호부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임신 축하 선물 증정 ▲배우자 임신 축하받기 ▲임산부 심리상담 ▲임신 축하 원내방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경북서부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사를 초청해 '임산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신규 기획하여, 캠페인의 효과를 한층 강화했다. 심리상담은 '예비워킹맘을 위한 행복예행 연습'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임산부 교직원들은 '나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민경대 병원장은 "이번 캠페인이 임산부 교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가 되고, 출산까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산부 교직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근무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H NETWORK

순천향 인간사랑 50년,
의료를 넘어 사람을 꽃 피우다

SCH 서울병원
www.schmc.ac.kr/
02-709-9114



SCH 부천병원
www.schmc.ac.kr/bucheon
032-621-5114



순천향대학교
www.sch.ac.kr



SCH 천안병원
www.schmc.ac.kr/cheonan
041-570-2114

SCH 구미병원
www.schmc.ac.kr/gumi
054-468-9114

